

광주시, 전국 첫 근로자 ‘반값 아침한끼’ 시작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 ‘간편한 아침한끼’ 개소
 샐러드·샌드위치 등 3000원 상당 구매 가능...배달도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반값 아침한끼’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27일 오전 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서 ‘간편한 아침한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간편한 아침한끼’는 근로자 조식 지원 사업이다.

광주시는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복지 증진을 물론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위기 속 근로자들의 경제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가 식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근로자들은 ‘간편한 아침한끼’에서 샐러드·샌드위치 등을 절반 가격(3000원 상당)에 구매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정 수량 이상을 전달까지 주문하면 배달 판매도 진행한다.

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다.

개소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용빈 국회의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하남산단관리공단, 하남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표와 근로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력키산업 근로자인 김준희씨는 “일찍 출근하는데 혼자 살고 있어 끼니를 거르는 때가 많았다”며 “간편하게 아침식사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며, 자주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최봉규 천일산업 대표이사는 “민선 8기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며 “근로자 복지는 물론 사업장 작업 능력 향상에 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근로자 조식지원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 시작된다. 근로자들에게 간편하지만 든든한 한끼가 되길 바란다”며 “조식 지원,



강기정 광주시장이 27일 오전 광산구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 마련된 산단근로자 조식지원 간편한 아침한끼 개소식에 참석, 참석자들과 샌드위치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광주시 제공)

조용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등 앞으로도 소 소하지만 의미 있는 ‘소확행’ 정책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챙기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해 하남산업단지 시범운영을 시

작으로 이용자 수요와 만족도 등을 살핀 뒤 1 일 판매 지원량(현재 100~120개) 확대, 김밥 등 메뉴 다양화, 다른 산업단지로의 판매 지역 확장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형택기자

전남 퇴직교사 150명 시국선언 “한일정상회담은 굴욕적 외교”

전남지역 퇴직교사로 구성된 ‘전남참교육동지회’가 한일정상회담을 굴욕적 외교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 규탄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퇴직교사 150여명으로 구성된 ‘전남참교육동지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한일정상회담은 우리 국민들의 역사적 노력과 진전을 한순간에 짓밟은 폭거이다”고 규정했다.

단체는 “일제 강점기 36년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비통한 시간이었으며 해방이후 청산되지 않았던 친일세력들이 친미반공을 내세우며 분단을 유지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을 구축해 민족과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방해하는 족쇄로 지금까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식민지 역사 청산 작업은 국가와 정부가 아닌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숨을 건 투쟁에 의해 조금씩 진전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으로 한순간에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역사적 노력 한순간에 짓밟은 폭거”
 “친일세력, 민족·국가 발전 방해 족쇄”
 “2018년 대법원 판결 뒤집는 처사”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위한 외교이며 한일간의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고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이는 궤변이다”며 “역사적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보듬지 않고 역사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웃나라를 침략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치부를 가리기 위해 소녀상까지 없애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피해자가 먼저 용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으며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사과·배상 판결’을 뒤집는 반헌법적 처사이다”며 “윤석열 정부는 친일외교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참교육동지회는 28일 오전 전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친일정부 퇴진’ 시국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이슬기자

“온통 하얀꽃 세상”...나주서 4월 8~9일 ‘배꽃 대향연’



나주에서 오는 4월 8~9일 이틀간 '2023년 나주 배꽃 대향연'이 열린다. (사진=나주시 제공)

하얗게 핀 배꽃 세상으로 변한 나주에서 봄날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아가자기한 축제가 펼쳐진다.

나주시는 4월 8~9일 이틀간 전국 유일의 배 박물관인 나주배박물관 일원에서 ‘2023년 나주 배꽃 대향연’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나주 배꽃 길에서, 봄을 만나다”라는 주제

로 지역 대표 특산품인 나주배 전시·홍보와 다채로운 체험·이벤트, 공연 등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나주시는 행사 기간 배꽃과 더불어 영산강 둔치 공원 유채꽃밭, 한수제 벚꽃 거리에서 관광객들이 나주의 봄꽃 대향연을 즐길 수 있도록 봄꽃 명소 3곳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도 함께 운행한다. 배꽃향연은 행사 첫날에는 13년 만에 나주 배꽃 축제 부활을 축하하는 배꽃 어린이 재롱잔치, 시립합창단·어린이집 축하 공연이 열린다.

둘째 날은 배 껍질 길게 깎기, 배 예쁜 모양으로 깎기, 나주배꽃 4행시 짓기 등 관광객이 참여해 경품을 받아 갈 수 있는 이색 경

나주배박물관 일원 ‘나주 배꽃 길에서, 봄을 만나다’

영산강 유채꽃밭·한수제 벚꽃길 연계 셔틀버스 운영

연과 배즙을 섞어 만든 인절미를 직접 메쳐 보고 맛보는 배떡 나눔 체험이 진행된다.

꽃물결이 출렁이는 배꽃·유채꽃밭을 배경으로 ‘전국 사진 촬영대회’가 첫날 열리고, 둘째 날에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즉석 배꽃 사진(핸드폰) 촬영 콘테스트’도 열린다.

나주=송준표기자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자연의 선물, 구리
 Gurye
 산수유